

“확실한 카드가 없네”...KT 서동철 감독의 고민

(1순위 구단)

변준형·박준영·전현우 '빅3' 후보에 빅맨 필요한 KT, 박준영 택할지 관심 2순위 KGC, 가드 변준형 영입 원해 눈에 띄는 재목 적어 눈치싸움 가능성



KBL은 19일 2018 국내 신인선수 드래프트 순위 추첨을 진행했다.

부산 KT가 1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가운데 안양 KGC가 2순위, 울산 현대모비스가 3순위 지명권을 가져가는 행운을 누렸다. 4순위 창원 LG, 5순위 고양 오리온, 6순위 인천 전자랜드 등이다. 26일로 예정된 트라이아웃&드래프트 지명 행사를 앞두고 각 팀은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 이번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들 중 팀을 확 바꿀 수 있을 만한 확실한 재목이 보이지 않아서다. 식스맨 정도도 활용할 만한 고만고만한 선수수가 많아 각 팀들의 머릿속은 더 복잡하다.



부산 KT 서동철 감독이 지난 19일 서울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2018 KBL 국내신인선수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획득한 뒤 순위추첨판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6일로 예정된 트라이아웃&드래프트 지명 행사를 앞두고 각 구단들의 복잡한 머리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리온중심 1순위

1순위 선발권을 가진 KT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변준형(동국대), 박준영, 전현우(이상 고려대) 등 3명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KT 서동철 감독은 팀 지휘봉을 잡기 직전까지 고려대 사령탑을 지냈다. 고려대를 지휘한 시간은 짧았지만 박준영,

전현우를 잘 안다. 변준형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갖고 있다. 그래서 더 심숙고하는 분위기다. 팀 사정상 빅맨이 필요하지만 3명 중 빅맨 자원으로 분류되는 박준영은 포워드 성향이 짙은 선수다. KT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서 감독의 선택이 더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 1순위 선발권을 가진 KT가 이를 활용한 트레이드 등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고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가드가 필요한 KGC의 선택은?

KGC는 선수 보강이 필요한 포지션이 확실하다. 가드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변준형이 딱 어울리는 선수다. 하지만 KT가 변준형을 선택할 수도 있어 일단은 1순위로 누가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한다. KT가 변준형을 뽑으면 고민을 거듭해야 한다. 박준형을 선택하면 팀 내 포지션 중복 현상이 심해진다. 슈터 전현우도 마찬가지다. KGC에는 슈터 자원이 많고, 내년 1월 말 문성근도 상부에서 돌아온다. 고졸 가드 서명진(부산중앙고)이라는 기대주가 있

지만 성장시켜 활용해야 해 이번 시즌 전력으로 분류하긴 힘들다. KT가 변준형을 뽑지 않는 게 KGC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다.

●딱히 보이지 않는 3순위 이후의 지명

3순위 이후는 안개속이다. 1,2순위에서 박준영, 변준형이 빠져나간다면 더더욱 그렇다. 전현우가 194cm의 장신 슈터지만 4학년 내내 별다른 활약상이 없었다.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얘기다. 서명진을 선택해도 이전 사례를 봤을 때 제대로 활용하기까지 최소 2년이 필요할 수 있다. 201cm의 슈터로 고려대 2학년을 마치고 프로에 도전한 김준형도 주목받는데 대학무대에서 벤치멤버에 불과했다. 김준형도 육성해야 하는 자원이자, 그 외에 1라운드 선발이 가능성이 거론되는 우동현(명지대), 김한솔(상명대) 등도 당장 프로에서 뛰어들어 선배들과 대등한 싸움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게 스카우트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박인비

‘박인비 인비테이셔널’ 23일 개막

‘골프 여제’ 박인비가 호스트를 맡는 오렌지리프 챔피언십투로피 박인비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이 23일 경북 경주 블루원 디아너스 컨트리클럽에서 개막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 대회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스타 플레이어들이 총출동한다. 박인비와 박성현, 전인지, 유소연, 지은희, 최윤정, 이정은5, 이미향, 신지은, 리디아 고(뉴질랜드), 이미지(호주), 다니엘 강, 제니퍼 송(이상 미국) 등 13인이 ‘팀 LPGA’로 뭉치고, 이정은6와 최혜진, 오지현, 이소영, 김지현, 김지현2, 김자영2, 김아림, 이다연, 장하나, 조정민, 이소현, 김지영2 등 13명이 ‘팀 KLPGA’로 결집한다. 이들은 첫날 포볼, 둘째 날 포섬,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를 펼친다. 2015년 초대 대회와 2회 대회에서 팀 LPGA가 우승을 차지했고, 지난해 3회 대회에서 팀 KLPGA가 첫 우승을 맞았다. 이번 대회 우승팀 상금은 6억원, 준우승팀 상금은 4억원이다.



안병훈

김시우

안병훈·김시우 ‘골프 월드컵’ 출전

안병훈과 김시우가 태극마크를 달고 우승 합작에 나선다. 안병훈과 김시우는 22일(한국시간) 호주 멜버른 더메트로폴리탄 골프클럽에서 개막하는 골프 월드컵(총상금 700만달러·약 79억원)에 동반 출전한다. 둘을 포함한 28개국 골퍼 56명은 나흘간 포볼(1·3라운드)과 포섬(2·4라운드) 플레이를 통해 자웅을 겨룬다. 안병훈과 김시우는 각각 세계랭킹 50위와 57위 자격으로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 2002년 최경주와 허석호가 기록한 역대 최고성적인 공동 3위를 넘어 사상 첫 우승을 합작하겠다는 각오다. 안병훈은 2016년 대회에서 김경태와 짝을 이뤄 22위에 오른 경험이 있고, 김시우는 이번 대회가 첫 출전이다. 1953년 창설돼 올해로 59회를 맞는 이번 대회에는 카일 스탠리-맷 쿠처(미국), 이안 풀터-티랄 해턴(잉글랜드), 고다이라 사토시-다니하라 히데토(일본) 등이 출전한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아산 우리은행 외국인선수 크리스탈 토마스(34번)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위성우 감독은 단점보다 장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 선수의 개인능력보단 사령탑의 활용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믿음에서다. 사진제공 | WKBL

“토마스, 패스 받아먹기만 잘 하면 돼...오케이?”

우리은행 위성우 감독이 말하는 외인 활용

만능플레이보단 단순한 플레이 주문 토마스, 1R 리바운드 1위 기대이상 “투박해도 패스만 잘 받아주면 만족”



짧힌다.

남녀 프로농구 감독들은 하나 같이 외국인선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 빅맨에게는 리바운드와 골밑 득점은 기본이고 상대 빅맨 수비, 블록슛, 속공 가담, 어시스트까지 기대한다. 외국인선수는 비디오 게임에서 나오는 만능 캐릭터가 아니다. 또한 감독들의 요구를 다 충족할만한 실력이라면

국내리그에 오지도 않는다. 이에 반해 위 감독은 심플하다. 리바운드와 국내선수들의 패스를 ‘받아먹기만’ 해도 만족이다. 올 시즌 우리은행이 선택한 외국인선수는 크리스탈 토마스(29)다. 신장은 196cm로 큰 편이지만 사이언 파커(KEB하나은행), 다미리스 단타스(OK저축은행), 카일라 쏘튼(KB스타즈) 등 팀 외국인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경력, 기량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부족하다. 지난시즌 우리은행의 통합우승에 기여한 나탈리 어천와(26·191cm)와 만큼 영리한 선수도 아니다.

우리은행은 특급 외국인선수 없이도 1라운드 5전 전승을 기록하고 있으며 위 감독은 토마스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위 감독은 21일 “애초에 가장 드래프트 마지막순번(6순위)에 뽑은 선수여서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솔직히 영상도 많이 보지 않았다. 그냥 ‘리바운드는 잘 잡을 수 있겠

다’ 싶어서 뽑았다”고 말했다.

토마스는 1라운드 5경기에서 평균 13.8점·13.8리바운드를 기록했다. 득점력은 떨어지지만, 리바운드에서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기대 이상의 활약에 여자프로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은행이 외국인선수를 잘 뽑았다’고 이야기 하지만, 그보다 선수의 능력을 잘 활용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위 감독은 “어천와가 토마스보다 좋은 선수지만, 기록상으로 큰 차이는 없다. 지난시즌 어천와는 평균 16점·11리바운드 정도를 기록했다. 어천와보다 토마스가 3점정도 덜 넣지만, 리바운드를 평균 2개~3개를 더 잡아준다”고 평가했다. 덧붙여 “공격이 서툴고 플레이가 투박한 편이지만, 이 정도 리바운드에 국내선수들이 넣어주는 볼만 처리해도 만족한다. 본인이 잘하는 것만 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로건

랜드리

‘우려→기대’ KT 로건·랜드리 알고보니 ‘복덩이’ 외인 듀오

부산 KT는 ‘2018~2019 SKT 5GX 프로농구’ 정규리그에서 만년 하위 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다. KT는 21일 현재 10승6패로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시즌에도 높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선수 구성과 개막 이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2명의 주축 선수가 빠져나가 고전일 예상됐다. 하지만 시즌 개막 이후 줄곧 상위권을 유지하며 순항하고 있다.

KT가 상위권에서 경쟁하고 있는 가장 큰 비결은 3점슛 등 외곽 플레이를 위주로 한 공격농구에 있다. KT는 16경기에서 평균 91.4점을 넣고 있다. 이 부문 1위다. 경기당 3점슛 11.3개를 넣어 이 부문에서도 선두에 올라있다.

외국인선수 듀오 데이빗 로건(36·181.7cm)과 마커스 랜드리(33·196.8cm)의 역할이 크다. 로건은 경기 평균 3.9개의 3점슛을 성공시켜 1위, 랜드리는 2.4개의 3점슛 성공으로 4위에 랭크돼 있다. 두 선수가 번갈아 3점포를 가동하고 있으니 상대 팀에서는 수비하기가 까다롭다. 개인 득점 랭킹에서도 랜드리가 평균 22.5점으로 5위, 로건이 19.6점으로 8위에 올라있다.

KT는 랜드리와 조엘 에르난데스(23·185.8cm)로 외국인선수 조합을 했다. 하지만 에르난데스가 비 시즌에 훈련에서 기대만큼 활약하지 못했고, KT는 개막 2경기만에 단신 외국인선수를 교체하며 로건을 영입했다. 랜드리와 로건 모두 나이가 적지 않아 전성기에서 내려오는 상황의 선수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랜드리와 로건은 장신 외국인선수임에도 외곽플레이어 성향이 너무 강해 국내선수 센터와 포워드진의 높이가 낮은 팀과의 조화에 이문부호가 붙었다.

둘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며 KT의 시즌 초반 물풍을 이끌고 있다. 자신의 득점 뿐 아니라 국내선수들의 득점까지 지원하며 KT 코칭스태프의 신뢰를 얻어냈다. 로건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잠시 휴식을 취해야 하지만 A매치 브레이크 이후 둘의 신바람 외곽 농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